

겨울철 바이러스 설사에 방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채 찬 희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

서론

국내 양돈장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질병은 포유자돈 설사증이다. 포유자돈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겨울철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은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이 있다. 최근 국내 양돈업계의 4가지 변화에 의해서 겨울철 설사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수문제를 엄격히 규제하게 되어 농장에서 분만사 수세를 자주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사의 수세는 분만사의 미생물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수세를 하지 못하면 미생물의 증식이 되어 분만사의 오염을 촉진시킨다. 둘째, 최근 설계한 분만사는 슬러리 돈사로 분만사 바닥에 변이 축적되어 있게 된다. 슬러리 피트에는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돈방의 슬러리를 완전히 비우고 소독을 실시하여 돈사 바닥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된다. 셋째, 농장 분만사의 분만틀이 부족하여 분만틀 여유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만틀의 오염축적과 바이러스 설사병이 발생했을 경우 격리시킬 수 있는 분만틀이 부족하게 된다. 넷째, 여름철 중부율이 떨어져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종부가 실시되어 겨울철 바이러스 설사병이 다발하는 시기인 1월~3월에 모돈이 집중적으로 분만이 되어 백신접종 및 관리 등의 소홀이 우려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설사 전조증상

겨울철 바이러스 설사병이 포유자돈에게 발생하기전에 농장에서는 몇가지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농장마다 동일한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포유자돈 설사병이 유발된 농장에서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보면 5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농장에서 육성돈이나 비육돈이 설사를 시작하고 분만사 포유자돈이 설사를 유발한다. 둘째, 농장의 임신대기사(스톨사)에 있는 임신모돈이 설사를 하고 사료섭취가 2~3일간 감소한 후 분만사 포유자돈이 설사를 유발한다. 셋째, 새로 구입해온 후보돈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 후 분만사 포유자돈이 설사를 유발한다. 넷째, 수태지(웅돈)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 후 분만사 포유자돈이 설사를 유발한다. 다섯째, 중간상인 또는 출하차의 왕래이후 분만사 포유자돈이 설사를 유발한다. 이러한 5가지

전조증상이 유발된 후 2~3일이 경과되면 어김없이 포유자돈에서 설사가 유발되었다. 전조증상을 분석해보면, 돼지 바이러스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포유자돈에서만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 있는 모든 연령의 돼지가 감염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조증상을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효과적으로 돼지 바이러스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장관리측면에서의 예방법

지난 겨울에는 특히 후보돈을 구입한 후 바이러스 설사가 유발된 농장이 있으므로 후보돈의 입식은 12월까지만 하고 내년 1월부터 4월 까지의 기간에는 가급적 후보돈의 구입을 피하는게 좋다. 중간상인과 출하차는 오염원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중간상인이 돈사내로 직접 방문해서 돼지를 구경하거나 선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출하시 중간상인이나 출하차 기사 등에게 출하 돼지의 수송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또한 외부에서 온 출하차는 반드시 차량 바닥과 타이어나까지 완벽한 수세와 소독을 한 후 농장내로 유입시킨다. 가능하면 농장내로 출하차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에서 농장밖으로의 출하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역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가급적 여름에 평균 중부 두수보다 30%정도 증가시켜서 여름에 분만복수를 최소한의 연간 평균 분만복수를 유지하여 겨울철에 분만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분만사가 슬러리 돈사의 경우 늦어도 11월까지의 슬러리 피트를 완전히 비운 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계절 백신

겨울철 다발하는 바이러스 설사병은 포유자돈에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퇘지와 모돈에게도 감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 번식돈군의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현재 바이러스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분만전 4주, 2주

와 5주, 3주의 백신 프로그램은 분만 후 초유를 통한 포유자돈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지 번식돈군 자체를 위한 백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번식돈군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된다. 일년 내내 분만 후 4주, 2주와 5주, 2주의 백신 프로그램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10월 15일과 11월 7일에는 3주간격으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을 농장의 전체 번식돈군(모돈, 수퇘지, 후보돈)에게 백신을 일괄적으로 접종해야 된다.

편의상 백신 접종 전후로 분만전 백신시기와 겹치더라도 그냥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에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한다. 가끔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임신초기와 중기의 경우 100복당 한복 정도에서 백신 스트레스에 의한 유산이 유발될 수도 있다. 늦가을에 2회 계절백신을 접종한 후 3월 중순에 일회정도 백신을 추가하면 더욱 완벽하게 바이러스 설사를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할때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백신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각각의 백신을 번식돈군의 좌측과 우측에 접종한다.

겨울철 소독

여러 종류의 소독제가 바이러스 설사병에 효과적이지만 락스 계열의 소독제가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에 소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돈사바닥에 1주일에 2회정도 오후 1~3시경에 소독해 주면 좋은 예방 소독 프로그램이 된다. 특히 분만사에 안개 분무가 설치된 돈사의 경우 안개 분무를 이용하여 분무하여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養豚**

